



수험소식 및 수험자료

## 금년 5급 공채 PSAT, 헌법·언어논리 “무난했다” 우세

### -언어, 예년에 비해 평이...헌법, 조문 중심으로 출제

올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시험 1교시 과목인 헌법과 언어논리는 최근 기출에 비해 평이한 체감난도가 형성됐다.

2023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이 치러진 4일 장승중학교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헌법과 언어논리 모두 예년에 평이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다만 언어논리의 경우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다.

언어논리는 최근 난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나 올해는 모처럼 평이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논리 등 일부 까다로운 부분도 있었지만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체감난도가 달라질 수 있는 출제였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언어논리에 대해 응시생 A씨는 “단순히 생각할수록 쉬운 유형이었다. 답이라고 생각되는 걸 바로 고르지 않고 어려워 보이는 걸 하나하나 다 보려고 하면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응시생 B씨는 “무난했다. 앞서 치러진 입법고시에도 응시했는데 입법고시 언어논리보다 조금 더 평이하게 느껴졌다.”는 응시 소감을 전했다.

이에 반해 응시생 C씨는 “문제 자체가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시간이 부족했다. 논리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뺏겼고 실수를 안 하려는 생각에 시간 안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헌법의 경우 판례나 부속법령보다 헌법 조문 중심으로 출제되면서 체감난도가 낮아졌다. 응시생 D씨는 “선지 중에 대놓고 틀린 게 있어서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졌다. 판례나 부속법령은 많이 나온 편은 아닌 것 같고 헌법 원문 자체를 다룬 문제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응시생 E씨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최근 기출 중에서도 평이한 편이었던 것 같다. 작년에 판례가 많이 나와서 신경을 많이 썼고 최신 판례도 챙겨봤는데 비중이 크지 않아서 좀 허무한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2023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시험이 4일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1교시 헌법과 언어논리는 예년에 비해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진은 5급 공채 1차시험이 치러진 장승중학교 시험장〉

참고로 헌법은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통과하고 합격 여부를 결정짓는 평균 점수에는 산입하지 않는 P/F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평균 점수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고득점을 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과목에서 아무리 좋은 점수를 받아도 헌법에서 기준 점수를 넘기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난이도 조절이 매우 중요한 과목이다.

지난해 헌법은 판례의 비중이 높아지고 지문이 길어지는 등 유형 변화가 있었다는 반응이 많이 나왔다.

이번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총 35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이에 1만 2356명이 지원해 평균 35.3대 1의 경쟁률을 형성했다. 이는 지난해의 38.4대 1에 비해 다소 하락한 수치다. 지원자 감소로 다수 직렬에서 지난해보다 완화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이번 시험의 결과는 오는 4월 6일 발표될 예정이다.

(출처/법률저널)